

[로스쿨 합격기]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 1975년 10월 생
- 전주영생고등학교 졸업(1994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2000년)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이 동 규

I. 들어가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지난 한 학기는 훌륭한 교수님들, 뛰어난 학우들과의 열의에 찬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이루어진 교수님들의 신선한 지적인 자극과 학우들 간의 자유롭고 건설적인 질문과 토론은 서강 로스쿨에서의 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로스쿨입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써 봅니다.

II.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기까지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나 두 차례의 도전이

실패하였고, 카투사로 군복무를 마치고 결혼, 그리고 수학 강사라는 직업과 함께 사법시험 준비를 병행하면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치렀습니다. 이후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사법시험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로스쿨 진학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보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선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특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했으면 해, 이번만큼은 자기만 생각해’ 라고 말해 주었을 때 눈물이 날 듯 고맙고, 용기를 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최상의 장학제도를 갖춘 서강 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대한 의지를 보게 되었고 이것이 서강 로스쿨로의 도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아내의 모교에 대한 자긍심은 서강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진리와 자유의 이념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서강의 실사구시의 학풍은 서강 로스쿨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였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느 로스쿨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강 로스쿨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 서강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인권의식을 갖춘 국제적 기업법 전문 법조인 양성’으로 경제학을 전공한 저에게 가장 적합한 로스쿨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강 로스쿨의 경우 입학 전형과 관련해 LEET 성적, 학사 과정 성적, 공인 영어 성적, 논술 성적 등 정량적 요소 뿐 만 아니라 자기 소개서, 면접 등 정성적 요소를 상당한 정도로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중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선택에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정을 내렸고, 결정한 이상 뒤돌아 볼 겨를 없이 최선을 다해 로스쿨 진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격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로스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스쿨 진학은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을 쏟아 준비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로스쿨 생활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비 문제의 경우, 열심히 공부

하신다면 다양한 장학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한국 장학재단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필요한 정량적 요소- 공인 영어 성적, LEET 성적 과 정성적 요소-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중심으로 저의 경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II. 공인 영어 성적

로스쿨 진학과 관련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성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맞춰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인 영어 성적을 일정 점수 이상 확보해 두지 않으면 LEET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험 기간 내 내 불안 요소로 작용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절대로 영어 성적만이 로스쿨 진학의 모든 것인 양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로스쿨이 토익이나 텡스 중 비교 환산표에 따라 유리한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비교환산표에 따를 때 토익이나 텡스 중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을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시험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에 토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로스쿨 마다 사용하는 환산표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비교 환산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는 토익을 집중적으로 준비 하였습니다. 직장 때문에 영어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고, 혼자서 매일 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 두고 공부했는데, 리스닝 대비를 위해 시나공 토익의 '리스닝 시험에 나오는 문장듣기' 를 반복해서 들었고, 실전감각을 기르기 위해 시나공 토익 실전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텍스트 자체를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풀어 보았고 세 번 응시한 결과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특히 리스닝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문장을 소리 내서 따라 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영어 문장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IV. LEET(법학적성시험) 준비

처음 LEET를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가장 먼저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대학별 본고사를 치르고 대학에 입학했었기 때문에 LEET시험 형식이 낯설지는 않았지

만 그러한 막연함을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의 조언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교재와 공부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교재의 경우 언어이해는 '사고와 표현1, 2'를 주교재로 하였고, 추리논증은 '조성우 LEET 추리 논증'을 주교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실전논술 I, II-논리와 비판'을 주교재로 하였습니다.

1. 언어이해

언어영역의 경우는 특별한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감을 잡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지만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실제로 시간적 압박 하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어이해 점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LEET 기출문제와 MEET/DEET 기출문제, 언어이해 모의고사 등을 시간 내에 푸는 작업을 계속하여, 지문에서 문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 없는 부분을 선별하는 능력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도 NEO LEET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집을 주어진 시간 안에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2. 추리논증

추리논증은 추리와 논증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일상 언어를 통한 추리, 수리적인 자료해석에 기초한 추리 그리고 퍼즐형 문제 등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부분과 논증을 제시하고 주어진 제시문을 분석, 재구성 하거나 반론, 비판, 오류를 지적하는 논증 능력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수학강의를 해서인지 추리 부분의 수리추리나 논리게임, 그리고 논증 영역의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반론 부분에서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은 어떤 특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된 엄선된 문제를 많이 접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성이 담보된 문제인 기출 문제는 빠짐없이 여러 번 풀어보았고 조성우 LEET 추리논증을 기본 교재로 하고, NEO LEET 추리논증 실전모의고사를 문제집으로 하여 반복하여 풀어 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실전대비 문제 풀이 훈련 및 틀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응용 가능성을 염두 해 두시고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3. 논술

LEET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과 주어진 조건에 근거한 정확한 독해력과 논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제시문의 논점을 빠르게 뽑아내고 주어진 분량에 맞춰 장황하지 않고 압축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배경 지식과 답안 작성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전자의 경우는 논술시험 대비이자 동시에 면접시험 대비가 됩니다. 여러 분야의 쟁점 및 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하기 위해 신문 사실과 TV 토론을 많이 보았고 심층 면접 관련 교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써보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 했는데 사법시험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답안 작성 연습을 했던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120분간 약술형과 논술형 2문제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논술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해 보고 첨삭을 받는 훈련을 가능한 한 많이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V.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의 경우, 각 로스쿨마다 형식이나 분량에서 차이가 있고,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할 학교를 빨리 선택해 그 기준에 맞추어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의 경우 만족할 만한 성과물을 얻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작성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먼저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교육목표나 특성화 전략이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제가 그러한 부분에 부합하는 인재임을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논증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특히 지원동기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고, 학업계획서의 경우 장래 어느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공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VI. 면 접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법조인의 특성상 면접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면접시험 점수의 반영 비율이 높은 로스쿨이 많습니다. 이러한 면접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

으로 한 합리적인 답변능력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적 압박 하에 면접관이 수궁할 만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여러 분야의 쟁점에 대한 자기 나름의 답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로스쿨 심층면접 관련 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들을 뽑아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정리해 연습했습니다. 또한 MBC 100분 토론과 같은 토론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습니다.

서강대학교 로스쿨 면접시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동 대기 장소에서 번호 순서대로 대기하다가 앞 사람이 면접시험을 보는 동안 면접실 바로 앞에 마련된 1인 대기 장소로 이동해 미리 질문지를 보고 답변을 정리한 후, 면접실에 입장해 두분의 면접관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지 내용에 대한 답변 후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추가 질문이 이어지는 데 일관성 있는 답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상에 관한 질문도 하셨는데 학업계획서에서 밝힌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갈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VII. 맺으며

지난 학기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영래 변호사의 삶을 학우들과 나누며, 국가 공권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한 개인을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변호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님의 강연을 통해 로펌의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등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인권 수호를 위한 법적 조력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과 학우들과의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교환, 토론 등을 통해 제 자신의 법률가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같습니다. 많은 학습 분량을 소화해 내기 위해 때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학우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기도 하지만 적절한 긴장감 속에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법조직역에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 오고자 닦을 올렸습니다. 선한 뜻을 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신다면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은 반드시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